

내년에는 여러분의 합격수기가 나오길 바라면서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임지웅님

합격수기

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금번 31회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임지웅입니다.
늘 꿈꾸던 목표를 이룬 기쁨도 크고 늘 상상만하던 합격수기를 작성하게된
것이 정말 꿈만 같기만 합니다.

합격수기를 작성하기 전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할지 많은 고민도 있었고
이왕 작성하는 합격수기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망설임도 컸습니다.
뒤돌아보면 저 역시도 수험생 시절 이 시기에 합격한 선배 관세사님들의
합격수기를 접하였고 그 합격수기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얻었기에 최대한
이 글의 주된 독자가 되는 현재 관세사 시험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으로 선택하였던 방법론들이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험공부와 관련하여 최대한 가감 없이 작성
할 것이고 참고를 하시되 제 합격수기 외에 올라오는 금번 31회 합격자들의
합격수기를 종합하시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들 속에서 도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수험기간

2011년말에 시작하여 2012년에 1차 2차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고 2013년 1차 합격으로 인하여 2014년도에 유예생으로 2차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3. 공부방법

공부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험생활 중에서도 주변사람들을 보며 같은 강의 및 책을 봐도 정리하는 방법이나 필기 등이 다양했고 활용하는 도구들 또한 다양했기에 수험생으로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 공부에 왕도는 없으나 합격에 정도는 있다고 느꼈고 처음으로 했던 작업이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를 모두 프린트하여 형광펜을 들고 정독을 하며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태껏 해왔던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들에 대하여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고 갖춰야할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세워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4. 1차 시험

13년도에 1차시험에 합격하였고 그리 높은 점수로 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외계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컷점수를 조금 넘는 행운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 대해선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한 많은 분들께서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시행착오 등이 적다고 생각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1) 관세법 - 80점

1차 관세법은 객관식과목으로 최대한 학원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되 1차 구민회 강사님 관세법 이론을 수강한 후 12년도에 동차로 준비하면서 제갈현근 강사님 2차 관세법 이론 심화를 수강한 후 1차 시험 전에 1차 모의고사반을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1차 관세법 과목을 2차 관세법 강의로 대비가 되는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나 분명히 강조하는 부분 및 객관식으로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관세법은 깊게 이해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 문맥상의 암기가 필요한데 비하여 1차 관세법은 깊이 있는 이해보다 넓은 범위에 대하여 주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세세한 암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했고 강의와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파악된 조문상에 주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회독을 하며 대부분의 문제들은 지문속에 어색하게 다가오는 부분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무역영어 - 65점

무역영어는 단지 영어과목이기에 부담감이 조금 더 컸었고 가장 우선적으로 수강했던 과목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용원 강사님을 통하여 이론 과목을 수강하였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일반적인 영어 시험 즉, 문법 등이 강조되는 시험이 아닌 주요 협정과 무역실무의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바 최초로 하였던 공부방법은 기출문제와 기본서에 등장하는 무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하여 단어장을 만들었고 이동간에 혹은 쉬는시간에 암기해가며 노력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후에는 공부 시작 전과 후 30분씩 할애하여 CISG, UCP600, 인코텀즈 원문을 범위를 정하여 정독하였고 이외의 무역영어 공부시간에 기본서 중심으로 회독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2차 무역실무를 수강한 후에 무역영어를 봐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굳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무역영어 강의만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영어 역시도 협정등을 특별히 암기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협정등의 경우 원문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내용이 떠오르고 중간에 바뀐 단어등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자주 봤던거 같습니다.

이 역시도 모의고사반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얻었고 특히나 마지막에 하셨던 특강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3) 회계학 - 45점

관세사 1차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이 회계학으로 인하여 의비가 갈리는 과목중에 하나였고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다 보니 처음에 공부방법이나 출제경향도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회계원리만 2주 내내 붙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회계학은 강의를 듣게 되는 강사님마다 문제에 대한 풀이방법이 상이한 점이 크기에 자신한테 맞는 강사님을 찾거나 혹은 그 방법을 체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00 세무사님 강의를 통하여 준비하였고 우선적으로 출제빈도가 높은 재무회계를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원가회계는 천00 강사님 책을 통하여 출제빈도수가 높은 파트위주로 15개정도로 축약시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우선적으로 과락을 피하는게 목적을 두었고 역시나 아슬아슬하게 점수를 받게 되는 행운 아닌 행운이 따랐습니다.

좋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처음에 몇 몇개만 준비했던 말 문제들을 뒤늦게 처음부터 정리해 갔던 것이 실수였던 것 같고, 기본서 외독도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에 있어 기본서나 문제풀이집에서 한정된 분량의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답과 풀이과정을 외워버린 상태로 보면서 외독을 했던게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관련 파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문제 푸는 스킬을 쌓는게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내국소비세법 - 80점

최근까지 회계학과 같은 2교시에 풀게 되는 과목으로 많은 수험생들에게 합격하는데 있어 발목을 잡지 않는 과목이라고는 그만큼 고득점을 하여 이외 과목에서 얻지 못한 점수를 득점해야만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했기에 소홀이 본적 없으며 부가세법, 주세법, 개별소비세법에 있어 버리는 파트 없이 봤었고 또한 계산문제를 풀지 못하며 고득점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있어 회계학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해하고 문제 푸는 스킬을 쌓기 위해 시간투자가 필요했지만 결국 버리는 파트 없이 전부 봤던 것 같습니다.

(5) 1차 기타

시기적으로 봤을때 동차를 준비하며 1차 과목은 관세법 회계학 무역영어는 처음부터 꾸준히 했으며 내국소비세법만 1차시험 3~4개월전에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초반에 무역영어의 단어장을 제외하고는 딱히 서브노트 개념으로 준비한 것은 없었습니다.

5. 2차 시험

동차로 준비했던 해임에도 불구하고 1차 합격에 대하여 명확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1차 시험 직전 3개월 동안은 2차 공부를 완전히 놓게 됐고 1차 시험 이후 합격사실 확인 후 곧장 2차 강의들을 다시금 수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2차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과목별로 자신감있게 써지는 문제들이 거의 없었으나 실제 시험장의 분위기와 실제 기출문제를 접할 때의 느낌들은 후에 유예로 2차 시험을 봤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관세법 - 60.5점

1차를 통하여 접하였던 동일한 과목이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가장 자신있는 과목이었으나 공부를 할수록 많은양의 암기의 부담감과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어디까지 공부가 필요한지 고민도 많았던 과목이었습니다.

2차 관세법은 제갈현근 강사님을 통하여 수강하게되었고 처음에 공부방법으로 시도했던 방법에 있어 목차노트의 활용성을 언급하셨기에 이론과 심화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목차노트를 만드는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무작정 처음에 만들게 된 목차노트는 그저 기본서에 해당하는 목차들을 한군데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딱히 와 닿지 않는 목차노트를 만들다가 전부 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목차의 의미란 것이 눈술에 있어 큰 뼈대가 되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하나의 큰 목차 아래로 하위 목차로 어떠한 내용들이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한 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예컨대 '보세구역' 이라 한다면 기본서 혹은 법령집에서 언급되는 하위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주어야 한다면 그것이 '개요' 일 것이라 생각했고 그 외에 '종류' 는 하위로 나누어지는 지정, 특허, 종합보세 구역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지 기본서 목차를 옮겨 적어 놓는 목차노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며 기본서 목차와 달리 제가 생각 했을때 내용 및 의미상 더 적합하다는 목차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여 완성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있는 상태에서 그 날의 진도에 따라 내용상 충분히 이해한 것을 토대로 머릿속에서 카테고리화 혹은 조직화 시키는데 있어 더 없이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것은 이러한 과정은 관세법령을 체계화 시키는데 더 없이 좋은 방법이었으나 완성 이후에 목차 암기 스터디를 1회한 이후 거의 활용하지

않았고 하루 공부시간이 부족할 때나 모의고사 보기직전에 1회독 용도로만 가끔 꺼내 봤던 것 같습니다.

금번 시험에서 득점한 점수는 평소 모의고사 점수보다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점수였습니다. 금번 시험에서 1번 문제에서 논제 자체를 너무 크게 보았고 범위 선택 및 목차 잡는 데에만 5분은 썼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파트 들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걸 전부 다 쓰라는 것인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쓰기 시작한 이후 15분 이후 실제 시험에서 모험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5분동안 고민한 계획은 가산세, 가산금, 과징금별로 주어진 목차대로 나누어 간결하게 서술하려고 하였으나 서를 쓰고 난 이후 주어진 목차에 가산세, 가산금 등을 한군데로 모았고 이하 대목차에 대한 하위 목차로 2개 이상 목차를 잡지 않았습니다. 서술 역시도 최대한 가산세는 이려한데 가산금은 이려하다라는 방식으로 상호 비교관점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그래도 묻는 것도 많았고 파트별로 암기했던 세세한 부분들을 다 쓰고 싶은 욕심에 대목차 2개를 더 남겨놓았음에도 8~9페이지가 되버리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마지막 신의성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목차 아래로 하위목차 없이 조문의 완전성도 신경 쓸 겨를 없이 이해한 것 위주로 2페이지 가까이 길게 서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50점을 10페이지 넘게 서술하고 끝내고 보니 5문제를 남겨놓고 25분 조금 넘게 남겨놓게 되는 상황이었고 즉약시켜가며 필요한 내용 위주로 최대한 서술하였으며 정말 다행이도 놓친 문제없이 마지막문제 끝내려는 순간 종이 찼습니다.

관세법 공부에 있어서는 과목자체가 법과목이었기에 기본서에 정리된 법령 체계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후에는 무조건 답안지에 써가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머릿속에 특정파트나 논제를 떠올리면서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절차법이기도 한 관세법이기도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그림을 그려가며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2차 관세법은 환특법도 늘 1~2문제가 출제되기에 빼먹을 수 없는 과목이기는 하나 아무래도 관세법 준비하는 시간보다 많이 적었고 따라서 뒤로 갈수록 부담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수강하였었고 모의고사 시작 2개월 정도 정신이 맑은 공부 시작전 30분정도씩 대외/외환과 함께 정독을

하였고 이후에는 모의고사를 통하여 문제들을 뽑아서 대비했습니다.

6개월간 모의고사를 치렀음에도 실제 시험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기에 모의고사를 준비하실 때 정말 실전과 같은 긴장감으로 준비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1교시를 당황스럽게 치른 이후 감정을 추스르고 정신이 번쩍들었기에 2교시부터는 무난하게 치를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2) HS - 63점

HS는 관세사 수험생들에게 있어 초반 진입이 가장 난해한 과목이기도 하고 따라서 동차를 준비하지 않다 하더라도 HS부터 시작하는 수험생도 있을 정도였기에 저역시도 초반에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과목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법령집상 규정들이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았고 이해가 된 것 같아도 그 의미가 상이한 경우가 많았기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인터넷 활용이 가장 많았던 과목이었습니다.

우00 강사님 강의를 들었으며 최대한 용어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읽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조전희 강사님의 기본서(해설서)를 이용하였고 법령집상의 전문용어 등은 구글 이미지 검색 등을 통하여 이미지화 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HS는 암기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이론 시작 이후 얼마안되 암기스터디를 구하게 됐고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문구들만 외웠던 부분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았고 휘발성도 정말 강했습니다.

HS 공부의 7할 이상은 답안지에 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쓰면서 문맥상 와 닿지 않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저만의 글로 풀어 써 본적도 있고 주규정 자체를 의미 단위로 끊어서 목차화 시켜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법령집 내용이외에 이해가 필요한 통칙이나 주요 주규정들은 해설서를 이용하였고 해설서는 원문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 주요 키워드 및 예시물품 등을 챙겨 법령집에 옮겨줍니다.

근래에 들어 직접적으로 해설서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으나 모든 범위를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했고 강의 중 중요하다고 짚어

주는 부분과 출제빈도수가 높은 부, 류의 주규정에 관련한 해설서들을 기본적으로 생겼습니다. 금번 시험에도 해설서 문제빈도가 높아졌는데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상식에 바탕을 두고 또한 관련될 수 있는 주규정을 끌어와서 결론적으로 품목분류 과목이다보니 그것에 초점을 맞춰 상황을 가정하여 분류까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컨대, 금번 2번문제에서 한번도 보지 못했던 삼투탈수방법과 관련한 문제에서 삼투압, 탈수, 등에서 착안하여 최대한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했고 상황을 가정하여 그것이 20류 주5 ‘조리해서 얻어진’ 에 해당되는 탈수라면 20류 아니라면 8류 이런식으로 서술했고, 이것이 배점에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문제라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품목분류관점에서 서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금번 시험에서는 해설서 내용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요하다고 강조 되었던 부분들에서 출제가 되었고 묻는 것들이 대부분 명확했기에 시간이 많이 남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남은 이후에는 맨 앞페이지로 돌아와 검토하는 과정도 있었고 글씨가 흐린 부분들을 교정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3) 관세평가 - 64점

관세평가는 시험에 들어온지 얼마 안된 과목으로 축적된 기출문제도 별로 없었으며 공부방법론에 대해서 이견들도 존재했던 과목이기에 준비하는데 있어 쉽지만은 않았으나 다른 과목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사례에 대한 공부가 많았기에 가장 흥미가 많았던 과목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어온 이후 매해 관세평가에서의 대량과락이라는 소식도 접하면서 공부를 하였기에 동차준비 때부터 관세평가를 수강하였고 김태주 강사님을 통하여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 상당히 적은 법령들을 보며 그냥 다 외우면 그만인가라는 생각도 하였으나 기출문제나 사례들을 보며 굉장히 실무적이라는 것과 법령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와는 다른 법률의 적용이나 해석들을 보면서 큰 벽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학원에서 판매 하였던 관세평가 관련 서적을 통하여 조문 암기나 정리의 시간을 뒤로하고 그냥 계속 읽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단지 법령상의 텍스트로만 와닿던 문구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해 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느낌을 얻는데 더 없이 좋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기본서 사례나 법,령,규칙,고시 정도를 외우는 시간으로 관세평가 공부시간을

할애하였고 확신이 안서는 가운데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김병수 강사님의 관세평가 이론을 처음부터 수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조문 등이 암기 되었었고 관세평가에 대하여 조금은 알고 있던터라 큰 거부감은 없었으나 WTO 협정이나 관세평가협약의 결정/안건 및 다양한 외국사례 판례등을 통한 강의에 관세평가의 범위가 2배이상은 늘었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업중 가장 먼저 한 것은 알고 있던 것과 모르고 있던 것 잘못알고 있던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었고, 최대한 집중하여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관세평가상의 논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에 초반에는 귀로만 강의를 듣고 이해한대로 필기 하느라고 30분동안 머리를 박고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금번 관세평가지험에서 1번문제를 보는 순간 관련 없는 내용을 가미하여 쓰기 시작한다면 1교시때 관세법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판단하였고 일단 문제지 상에 무엇과 관련된 사례인지 그리고 과세판단여부를 체크하고 답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모의고사나 강의를 통하여 대비를 해왔던 부분이기에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술에 있어서 해당 사례별로 목차를 2개이상 넘기는 것이 없었으며 또한 시간을 체크하며 목차는 한 개로 묶어서 서술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 관련 없는 규정, 조문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고 근거 규정과 조문 서술 이후 서술방식으로 모의고사때 모범답안을 통하여 채용한 '따라서' 라는 표현 등을 이용하여 해당 사례의 근거와 판단이 직접적 연관성을 가져 보이도록 서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표현을 공부하면서도 좋았다고 느낀 것이 '따라서',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기위해선 조금 더 근거와 판단이 직접적이고 명확해야지만 자연스럽게 써졌기 때문입니다.

관세평가를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험목적상에 맞는 범위를 한정짓고 또한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나타나는 관세평가논리들을 한군데 집약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다가도 서브노트의 필요성이 점점 느껴졌으나 모의고사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파하는 고민도 컸었기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와 함께 파트를 나누어 정리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상호 비교하며 추가/삭제할 부분들에 대하여 의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서브노트는 거의 a4 100p에 가까운 서브노트로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마지막달까지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며 무한정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세평가 공부하면서 김병수 강사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관세법, 영, 규칙, 고시 및 WTO관세평가협정을 한데 버무려서 머릿속에 조직화 체계화 시켜 놓으라는 말이었고 저 역시도 이것을 위하여 SUB도 활용하고 꾸준한 암기 이후부터 관세평가 과목에 대하여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기본서나 협정상의 사례들, 관세평가협의 결정사례들을 보며 어떠한 상황에 무엇을 근거로 어떤식으로 판단으로 내리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하루에 몇 개씩 보면서 그중 법령에는 없으나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는 부분들은 서브노트로 옮겨서 지속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친구와도 늘 얘기했던 것이 기본서 및 수험목적상의 이해를 위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서로 사례를 두고 논하되 굳이 발생되지도 않고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사례들을 가정하여 질문을 위한 질문에 집착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무수히 많은 실무상의 사례나 문구하나의 차이로 과세 비과세판단을 요하는 관세평가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상상의 나래가 가능한 과목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것들은 합격이후로 미루자는 결론을 내린 적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출문제를 보아도 기본에 충실하다면 충분한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무역실무 - 54.5

수험공부 중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모의고사 보기 몇 달전까지도 기본서 및 단권화 혹은 서브노트도 결정하지 못했던 과목이었으나 모의고사때는 점수가 가장 잘나왔던 과목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시험에서 외환과 무역실무 1문제를 거의 제대로 못 썼기에 점수가 제일 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동사로 준비하며 최00 강사님을 통하여 무역실무를 수강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혼자 외독을 하며 이 역시도 무역영어와 마찬가지로 3협약이라고 하는 CISG, UCP, 인코텀즈를 주로 보되 무역영어를 통하여 영문으로 접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버리는 부분 없이 고루고루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서상 뒤 파트였던 운송 보험쪽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쌓이다보니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가 되버렸습니다.

분량에 밀리다보니 단권화를 시킬 요량으로 서브노트도 3번이나 시도하다 증도에 포기했고 무역실무는 유일하게 기본서가 4종류를 갖고 있게 됐습니다.

다만, 무역실무도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목차노트를 만들기 위해 시도하였고 그 시점에 조금은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며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목차노트를 완성 이후 거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평가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접어들 무렵 박병호 강사님의 무역실무를 이론부터 수강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최대한 범위를 좁히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강사님께서 오이려 복합문제 및 앞 뒤 파트를 상호 연결 가능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강조도 하셨기에 처음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각론별로 보았던 때와 달리 앞 뒤 파트를 연결 짓고 그 속에서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한 단지 목차대로 그 해당 부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닌 상호 연결을 위한 전개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썰로 지부했던 부분이 논리적인 서술을 위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무역실무 마저도 협약등을 접하다보니 법과목 처럼 기본서 혹은 협약등에 없는 문구를 수험생으로서 서술할 때 망설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에서 오이려 그러한 방식의 서술에 배점이 더 높았고 박병호 강사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셨던 터라 기본서로 보던 책의 군데군데 저만의 말로써 풀어서 여기저기 써두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단지 외워야할 것들에서 이해하고 자기만의 말로써 풀어내면 된다는 생각이 드니 한층 범위도 줄어든 느낌이고 오이려 자신감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협약등을 온전하게 서술해야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원문에 가깝도록 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새끼과목인 대외환은 최재순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고 충분히 여유 갖고 9월쯤에 들었습니다. 다른 과목에 치여 조금은 소홀했지만 환특법과 한데 묶어서 공부시작전 환특법 30분, 대외환30분 이렇게 매일매일 봤으며 5월부터 2달간은 약 15개정도씩 파트만 추려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대외무역법은 아는 문제가 나왔지만 외환거래법은 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6. 기타수험생활

(1) 수험생활

최대한 활동반경을 줄였고 아침에는 무조건 8시 이전에 기상 저녁에는 11시 이전에는 취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것은 줄여도 자는 시간이 부족하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책상 앞에 앉아있다면 공부에 효율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는 시간만큼은 충분히 쉰겁니다. 공부 장소로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알맞는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날 잡고 몇 군데를 돌아다닐 정도로 고민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을 보내야하는 장소로 여겼기에 식당, 주변소음, 대중교통, 분위기 등등을 신중히 선택하게 됐습니다.

(2) 스터디

스터디를 총 3회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스터디에는 HS 암기 스터디였으나 수험시작 초반이었던터라 스터디원 모두가 시행착오 속에서 큰 효과 없이 스터디를 끝내게 되었고 그 중에서 생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생활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장단점이 있는 생활스터디에서 다행히도 공부 과정이나 그밖에 성격등도 잘 맞아 큰 트러블 없이 진행하게 되었고 서로 장단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부정적인 것들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하여 금번 합격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화의 80% 이상이 공부와 관련된 것이었고, 공부함에 있어서는 바로 눈 앞에 보이는 경쟁자였기에 그만큼 긴장감이나 공부에 몰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관세법, 무역실무 목차를 완성 후 목차 암기 스터디를 1회 진행하였습니다.

(3) 장비들

스마트폰 - 요금제를 최소화 시켰고 기타 SNS는 전부 삭제 하였을뿐 핸드폰을 산지 얼마 안되서 아파운마음에 들고 다녔습니다. 중간중간에 핸드폰 게임을 하기도 하였지만 딱히 공부에 지장을 준다는 느낌은 없었고 오히려 공부 중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펜 - 약필임에도 불구하고 펜 탓을 하며 정말 다양한 펜을 써봤고 결국 사라사 펜 대에 0.7mm 제트스트림 리필심을 사용하였습니다.

껌 - 껌 씹으면 집중력에 도움 많이 됩니다!~ 점심 먹고 매일 앉아있으니 소화가 잘 안 될때도 무조건 껌 씹었습니다!~

(4) 휴식 및 운동

수험생활이 보통 2~3년이라 했을때 후반으로 갈수록 경우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살과 함께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역시도 2차 시험 전 4월쯤부터는 눈에 보이는 비타민제와 홍삼들을 챙겨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급한 수험생에게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였고 도서관을 가는 길을 최대한 걸어 다녔습니다. 아침에 적어도 20분씩 걸었으며 점심 먹고 나서도 필요에 따라 15~20분씩 산책했습니다. 쉬는 때 마다 스트레칭을 해주었습니다.

길다고 하면 긴 수험생활에 있어 휴식 즉, 저마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밤이나 평일에 1~2일은 집에서 영화를 보다 잠들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1기 관세사 임지웅 드림

